

미국인 80%, 코로나 이전보다 저축 줄어 ... 경제성장에 악재

미국인 중에서 가장 부유한 20%만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시작됐을 때보다 더 많은 저축을 보유했다는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80%는 저축이 줄거나 바닥난 것으로 추정돼, 그간 성장을 일부 떠받쳐온 소비력의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 미국인 80%는 2020년 대비 은행 예금 등 유동 자산이 줄었다. 사진=shutterstock

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계 재정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한 축인 상위 5분의 1은 현금 저축이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당시보다 약 8% 더 많

다. 대략 미국 중산층에 해당하는 그룹인 그 다음 40%는 지난 분기에 현금 저축액이 팬데믹 이전보다 감소했다. 가장 가난한 나머지 40%는 같은 기간 8% 줄었다.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올해 6월 은행 예금 및 기타 유동 자산이 지난 2020년 3월보다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구매력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은 올해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경기 침체를 막는데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의 여유 현금이 부족해 경기 하강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총기 업계에 추가 세금 부과



▲ 캘리포니아주는 총기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사진=shutterstock

캘리포니아주가 총기 업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총기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전날 지역 내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총기·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총기 제조·판매업자는 연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기존 세금(판매액의 10~11%)에 더해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 세금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AP통신은 총기 규제 지지 단체인 '브래디'의 분석을 인용해 "주 차원의 이런 총기 과세는 미국 내 유일한 조치"라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총기 구매자에게 37달러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금액의 대부분은 신원 조회에 사용된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총기 업계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학교 안전과 총기 폭력 예방 조치, 가정폭력범의 총기 압수 등 다양한 총기 안전 대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기 옹호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소총·권총협회 등은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간 총기 사망 건수가 3천576건이었으나, 인구 대비 총기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인구 10만 명당 9명꼴로, 전체 50개 주 중 43위를 기록했다.

NYT "셰일오일 시추 탓에 미국 수자원 고갈 가속"

미국 내 셰일오일 개발이 지하 수자원 고갈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미 지하수보호위원회(GWPC)가 관리하는 에너지 회사들의 셰일오일 시추 관련 정보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셰일오일 업계가 2011년 이후 사용한 수자원이 1.5조 갤런(5조7천만ℓ)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규모의 물 사용량은 텍사스주의 1년 치 뚝물 사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NYT는 "거대 유전과 가스전은 미국의 취약해진 대수층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을 쓰는 중"이라



▲ 셰일 오일 시추시설. 사진=shutterstock

고 지적했다. 대수층이란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을 뜻한다. 미국은 전체 물 사용량의 90%를 대수층에 의존한다.

셰일오일 기업이 막대한 양의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원유가 섞인 퇴적암에서 높은 수압으로 파쇄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뽑아내는 공법 탓이다. 문제는 주요 셰일오일 생산지역이 텍사스주와 같은 건조 지역에 쏠려 있다 보니 이 지역

의 지하 수자원 고갈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스틴 텍사스대 연구진의 2020년 연구발표에 따르면 텍사스주 이글포드 광구 서부 일대의 대수층 깊이는 17m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이 지역 대수층 깊이가 셰일오일 시추로 8m까지 얕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